



2026. 7. 9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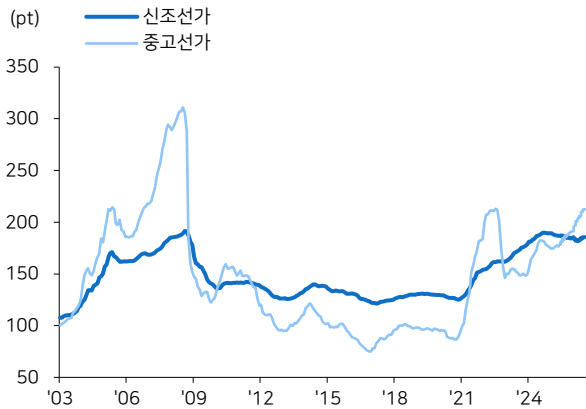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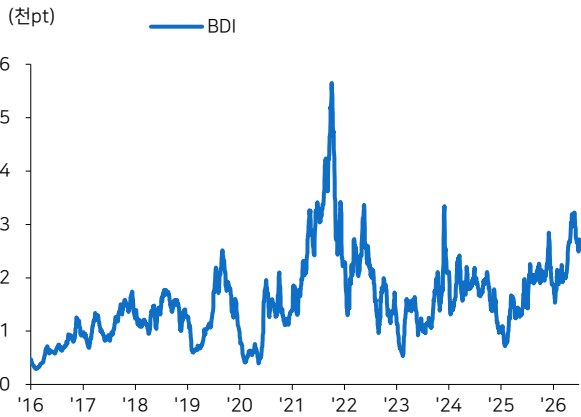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4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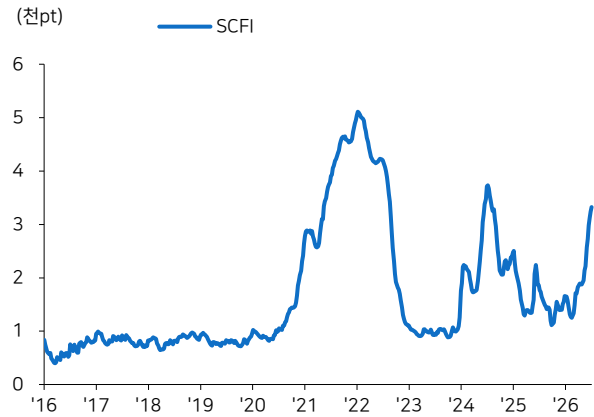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2.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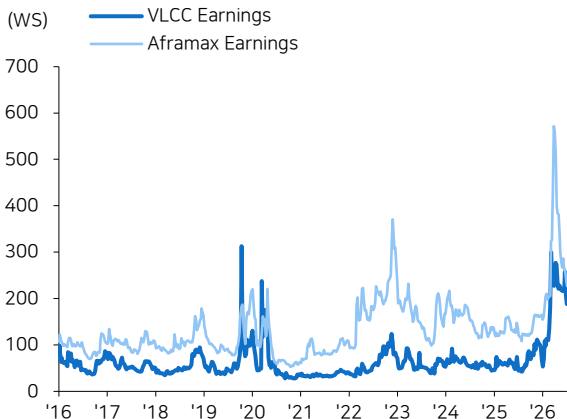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875.0p (+7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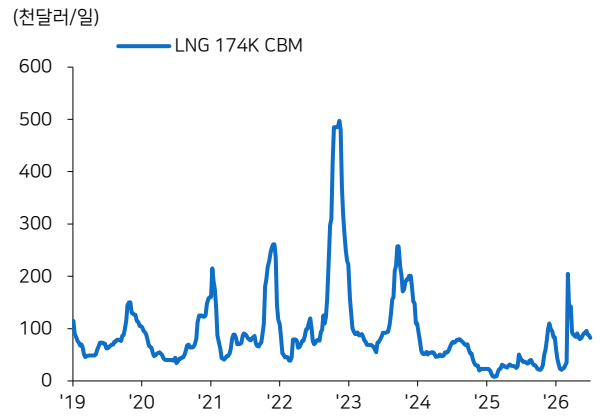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326.9(+87.2 WoW)



**VLCC Spot Rate** 187.9WS (-20.8p WoW)



**LNG Spot 운임** 82.5천달러 (-5.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HD 한국조선해양-슈나이더 맞손..."바다 위 AI 데이터센터 기술 공동 개발" (뉴스스)** <https://zrr.kr/ApuiWC>

HD한국조선해양이 글로벌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인프라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해상 플랫폼 기반 데이터센터 인프라 핵심 기술과 이를 해상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FDC 구현에 필요한 기술 요구사항과 최적의 인프라 솔루션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특히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데이터센터의 전력·냉각 인프라와 HD한국조선해양의 해상 플랫폼 설계 기술을 결합해 통합 설계 역량을 확보하는 데 협력하며, 이와 함께 최신 기술 동향과 엔지니어링 이슈를 공유하고 추가 공동 R&D 과제도 지속 발굴한다고 전해짐.
- HD 현대, 우루과이 국방장관 또 회동...페루 시마 모델로 OPV 수주 잔결음 (더구루)** <https://zrr.kr/ExCG3Z>

HD현대중공업이 페루 시마조선소에서 산드라 라조 우루과이 국방장관과 회동하며 중남미 지역 함정 사업 수주를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페루 해군 함정 공동 제작 및 기술 이전 등 현지 조선 역량을 강화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루과이의 원해경비함(OPV) 획득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고 전해짐. 이미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페루에서 약 6406억 원 규모의 함정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하며 중남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왔다고 알려짐.
- JP Morgan confirms tanker order at Samsung Heavy Industries (TradeWinds)** <https://zrr.kr/HqTbdw>

삼성중공업이 버뮤다 소재 선사로부터 수주한 2,849억 원 규모의 원유 운반선 2척의 실제 발주자가 JP Morgan으로 보도됨. 이번 계약으로 해당 선박은 2029년 5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를 포함해 JP Morgan이 올해 삼성중공업에만 총 7척의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을 발주했다고 파악하고 있음. JP Morgan은 최근 전 세계 조선소를 대상으로 3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선박 투자 프로젝트를 공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는 용선주의 강력한 신규 선박 수요와 노후 선대 교체 전략에 따른 전략으로 알려짐.
- Union Maritime inks breakthrough VLGCs order with HD Hyundai (TradeWinds)** <https://zrr.kr/AzDNMa>

영국 해운사 Union Maritime이 HD현대중공업에 9만cbm급 VLGC 2척을 발주하며 가스운반선 시장에 신규 진입한다고 보도됨. 척당 가격은 1억 1,500만~1억 1,800만 달러 규모로 총 2억 3,600만 달러가 투입되며, 해당 선박들은 2029년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최근 VLGC의 기록적인 수익성과 물량량 증가로 인해 올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가스운반선 발주가 급증하고 있으며, Union Maritime 역시 기존의 벌크선 및 탱커 중심 포트폴리오를 넘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알려짐.
- KKR, HD 현대마린솔루션 지분 전량 처분... '3 배 회수' 마침표 (조선비즈)** <https://zrr.kr/GOM2wy>

미국의 사모펀드 운용사 KKR이 HD현대마린솔루션의 잔여 지분 약 5%를 전량 매도하며 2021년 투자 이후 약 5년 만에 엑시트를 완료했다고 보도됨. KKR은 2021년 2월 HD현대마린솔루션에 6460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IPO 과정에서의 구주매출과 수차례의 블록딜을 통해 총 2조 2000억원이 넘는 회수액을 기록했다고 전해짐. 이번 성과는 선박 유지·보수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최근 조선업 호황에 따른 주가 상승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짐. 시장에서는 그간 주가 상승을 억제해 왔던 잠재적 매도 물량인 오버행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짐.
- 한화 오스탈, 호주 헨더슨 조선소에 용접 로봇 본격 도입 (더구루)** <https://zrr.kr/Veld4a>

방산업체 Austal이 주력 생산 기지인 서호주 헨더슨 조선소의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네덜란드 위코봇(WeCobot)의 협동 로봇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보도됨. 헨더슨 조선소는 향후 약 4조 원 규모의 대형 상륙정 8척과 중형 상륙정 18척 등을 건조할 예정이며, 오스탈은 이번 로봇 시스템 투입을 통해 엄격한 납기를 준수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알려짐. 한편, 한화그룹은 최근 Austal 지분을 19.9%까지 확대하며 단일 투자자로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